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

이 미 라*

동의대학교

박 미 정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중2)부터 2007년(고3)까지 실시한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이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차지연계수의 방향성은 부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1~5차 시점 간의 청소년 지위비행 자기회귀 효과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청소년 지위비행,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미라,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614-714)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24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211호, Tel : 051-890-2038, E-mail : miracle9025@deu.ac.kr

서론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함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청소년 비행이고, 이러한 청소년 비행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대책적인 개입이 강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청소년 비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경비행', '중비행'으로 구분하거나(정익중, 2006), '지위비행'과 '범죄비행'으로 구분(김경식·이현철, 2007)하고 있다.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지위비행'을 음주, 흡연, 가출, 성관련 행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위비행은 법률상으로 위법행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신분엔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등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비행은 범죄비행에 비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청소년 범죄비행의 대부분이 지위비행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다양한 지위비행 중에서도 가출은 범죄비행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가출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지위비행으로서, 가출행동 자체가 유발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성매매와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에게 자유와

모험심,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Wingert, Higgitt & Ristock, 2005),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 보다 비행에 노출될 경향이 많고, 건강문제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개인적 요인(안창규·전유식·문선화, 1995), 가정적 요인(Crespi & Sabatelli, 1993; Tyler, Hoyt & Whitbeck, 2000; 정경은·문성호,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학교 요인(장수한, 1993), 사회적 요인(연성진·민수홍, 2004)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지는데, 특히, 가정적 요인이 청소년의 가출을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가족적 요인(Farrington, 1995; Hagell & Newburn, 1996; Moffitt, 1993; Smith & Stern, 1997; 김영모, 2000), 특히,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Bourdieu(1977)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별해 '상호이해와 협조의 제도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원의 합계'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이동원·정갑영·박준·채승병·한준, 2009). Coleman(1990)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산물로 간주하고, 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과 관심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지지와 관여를 할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유형을 관계, 구조, 인지차원으로 구분하여 그 하위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비행 발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비행의 경우는 주로 경비행에 속하는 지위비행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위비행을 예방하는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연구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김경근, 2000; 신원영·강현아, 2008; 안우환, 2004)가 진행하였지만, 이 연구들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 연구로서 비행 관련 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어 시간에 대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와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셋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론적 배경

청소년 지위비행

청소년 비행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이나 사회적 관념, 가치관, 규범 등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음주와 흡연을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지위비행(status offenses)에서부터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준호, 이동원, 1996). 또한 Werner와 Smith(1982)는 청소년 비행을 흡연, 음주, 유흥가 배회 등의 일탈행동에서부터 가출, 무단결석, 심각한 음주, 약물남용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행동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비행’으로 구분하거나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행을 그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살펴보는 이유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Stott과 Olczak(1978)는 청소년 비행과 지위비행자 사이에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경상과 이순래 및 박철현(2007)은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비행유형(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을 분석하였는데, 지위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해은과 최정아(2007)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부모의 애착, 감독, 부정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김영모(2000)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포함한 사소한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Farrington(1995)는 8세 이하에 제공받았던 부모의 부적절한 부모 감독과 양육 기술이 청소년 비행과 성인 비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Moffitt(1993)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부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생애지속형 비행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다양한 지위비행의 유형 중 가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 연구는 크게 가출의 원인, 가출로 인한 문제, 대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가출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어서 설명되는데(김준호·박정선, 1991),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가족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 Crespi와 Sabatelli(1993)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가출의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정서적, 성적,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Tyler et al., 2000), 부모간의 갈등 정도,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화목도 등의 요인이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또한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부모님의 신체적 학대, 계부나 계모가 싫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부모님과 갈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지위비행의 정도를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기원은 19세기 고전 사회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활발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된 계기는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마련되었다. Bourdieu(1977)는 사회적 자본을 부모-학생 간의 관계로 인하여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실질적인 관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구조의 관계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행위를 촉진하고, 개인의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관계 자원으로서 이러한

관계 자원은 시간, 노력, 주의를 통해 생산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시작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미시적 접근은 최근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이라는 계량적 방법에 의해 발전하고 있으며, 거시적 접근은 설문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조사 결과를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Grootaert(1999)는 사회적 자본이 성장, 형평성, 빈곤탈출 등을 포함하는 발전적인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Aldridge, Halpern 및 Sarah(2002)는 사회적 자본이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족 및 친밀한 친구관계 등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 내 신뢰의 제한된 범위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신뢰 및 협동 수준을 하락시키고, 내부적 결속만을 강화시키는 사회관계 형태를 증진시킬 수 있다(Knack, 2002; Portes & Landolt, 1996).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형태는 크게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의 사회적 자본으로 존재한다. Bourdieu(1977, 1986)는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나 성인 가족과 자녀 사이의 관계 구조에 의하여 창출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족 내 부모를 포함한 성인 가족의 존재가 사회적 자본 창출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낳는다. 가족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로 인하여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실질적인 관여로 이해되기도 한다(안우환, 2004). Coleman

(1988) 또한 사회적 자본을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가정 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학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대화, 학습조력 및 지원 등과 같은 관계적 차원, 둘째, 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과외여부 등과 같은 구조적 차원, 셋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 등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다. 먼저, 관계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 간의 신뢰인데 (Coleman, 1990), 부모-자녀 간의 신뢰 관계는 일반적인 사적 신뢰로서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는 서로 간의 믿음, 대화, 관심과 지원, 협력 등으로 구성된다(안우환, 2004). 구조적 차원은 조직 내부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합에 의하여 구축된 사회적 연결망을 말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위한 채널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자원에 대한 표현, 해석과 각 부분들 간의 의미 시스템들 간의 공유를 말한다(Cicourel, 1973). 인지적 차원이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조직 구성원들이 상황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와 역량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므로 조직 내부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가치 창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안우환, 2004).

Coleman의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가족 외 사회적 자본보다 청소년의 인지발달과 심리사회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근, 2000; 신원영, 강현아 2008; 안우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자본 및 인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부모 감독 등과 같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비행과 더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기광도·이희열, 2002).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은 지위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Coleman(1994)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 내 사회자본이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McNeal(1999) 역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중 부모참여와 같은 부모애착요인이 학업성취 및 무단결석, 중퇴와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는 물질·인적 자원과 함께 사회적 자본이 적절하게 작용되어야지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eachman, Baumeister 및 Boone(2004)도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요인이 비행을 예방하는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Feldman과 Weinberger(1994)의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부모양육 태도와 가족의 기능이 남학생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소희(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애착이나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소년의 자아통제를 강화할 경우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가정적인 요인들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 역시 가정 내부에서 다양한 관계의 변화나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노성호(2005)에 의하면 비행친구들과 접촉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과 학업성적이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착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민가영(2007)은 신빈곤층 십대여성의 경우 다

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출을 경험하였고, 이후 가정으로 복귀를 하였지만, 이들은 가출 이후 변형된 가족의 형태에 적응을 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돈을 벌러 나간 성인 여성을 대신하여 가사노동, 육아, 엄마의 부재시 아빠에 대한 감정 노동 등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십대여성 장기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비행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Col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김경근, 2000; 안우환, 2004)와의 관련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비행의 또 다른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기제로써 사회적 자본과 비행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횡단연구로서 비행 관련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간의 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에 걸쳐 동일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조사대상은 1차부터 5차까지 전부 참여한 2,601명으로 남자 1,308명, 여자 1,293명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을 과정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정 중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의 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해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함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주요변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Coleman(1988)이 제시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의 세 가지 하위변인들로 측정하였다.

먼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6문항은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로 구성되어진다. 이 문항들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으로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관계적 차원의 각 연도별 내적 일관성은 .851, .880, .881, .888, .895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8문항은, 청소년들의 사교육 여부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의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과외 여부(0점:무 ~ 1점:유)로 측정되었다. 구조적 차원의 각

연도별 내적 일관성은 .850, .862, .802, .654, .658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4문항은 부모가 청소년의 생활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 문항들은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 대부분 알고 있다’ 등으로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인지적 차원의 각 연도별 내적 일관성은 .846, .862, .881, .877, .892로 나타났다.

지위비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청소년패널자료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지위비행(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조롱, 왕따) 여부(0점:무 ~ 1점:유)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지위비행의 정도에 따라 최소 0점에서 최대 7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모형이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지될 것이며,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검증할 것이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종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ARCL)을 실시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핵심은 t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t-1)의 값에 의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회귀 모델을 다변량 모델로 확장시켜서 두 변인 간의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effect)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홍세희·박민선·김원정, 2007). 즉, 각 변인들의 전년도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은 구조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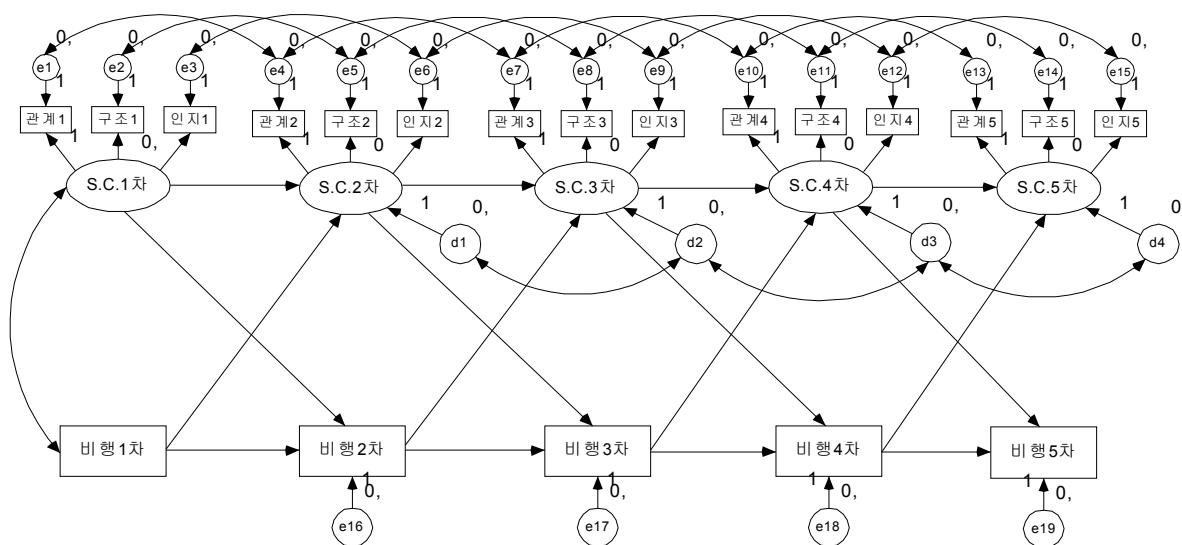


그림 1.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모형 분석용 프로그램인 Amos 7.0을, 기타 통계 검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자료가 가진 결측치로 인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내 사회자본의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별첨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관계적 차원의 평균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구조적 차원의 평균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2차년도(중학교 3학년)에서 3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의 평균은 2차년도(중학교 3학년)에서 3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감과 감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조적 차원과 관련된 사교육의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1. 가족 내 사회자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M,SD)

	1차	2차	3차	4차	5차
관계적 차원	20.08 (4.56)	20.58 (4.52)	20.67 (4.33)	20.83 (4.45)	21.16 (4.57)
구조적 차원	3.75 (2.26)	3.12 (2.35)	1.80 (2.37)	1.26 (1.41)	1.09 (1.39)
인지적 차원	12.93 (3.43)	13.56 (3.30)	13.50 (3.31)	13.73 (3.25)	13.84 (3.35)

또한 별첨 1에서 제시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계5와 관계4($r=.608, p<.01$), 관계4와 관계3($r=.60, p<.01$) 문항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변량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80을 넘어서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서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게 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은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자기회귀 교차지연(ARCL) 모델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2205.552	143	.0	.835	.887	.074

본 연구의 응답자수는 2,601명으로 표본의 크기가 큰 편이다. 표본의 크기가 클 때에는 카이사승 값이 크기 때문에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고, 그 대신 모형의 간명성과 표본의 크기를 모두 고려하는 TLI와 CFI 및 RMSEA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이상이며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RMSEA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김대업, 2009). 본 모형의 TLI 값은 .835이고, CFI값은 .887으로 권장수용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RMSEA값은 .074로 다소 좋게 나왔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경로

동일성→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해야 한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형 1: 그림 1에서 제시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
- 모형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3: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4: 지위비행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지위비행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6: 지위비행에 대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 모형 7: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여기서 모형 2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고, 모형 3과 모형 4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며, 모형 5와 모형 6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이고, 모형 7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위의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모형 1에서 부터 모형 7까지 순차적으로 비교 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카이제곱 차이 검증(Δx^2 test)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x^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및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LI와 CFI 및 RMSEA가 비교모형에 비해 향상되거나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7개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지수	x^2	df	TLI	CFI	RMSEA
모형 1	2205.552	143	.835	.887	.074
모형 2	2218.237	151	.843	.887	.073
모형 3	2286.889	154	.841	.884	.073
모형 4	2329.631	157	.841	.881	.073
모형 5	2346.157	160	.843	.881	.072
모형 6	2372.175	163	.845	.879	.072
모형 7	2742.924	165	.821	.859	.078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측정 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수 각각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와 모형1의 적합도 차이($\Delta x^2(8, N=2601)=12.685, \Delta TLI=.008, \Delta CFI=.000, \Delta RMSEA=-.001$)를 살펴보면, TLI, CFI, RMSEA 값이 근소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시

* 측정 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설정한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이는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시점 t-1의 잠재변수가 시점 t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 t의 잠재변수가 시점 t+1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통해 경로 동일성을 검증한다.

*** 종단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함으로써 각 잠재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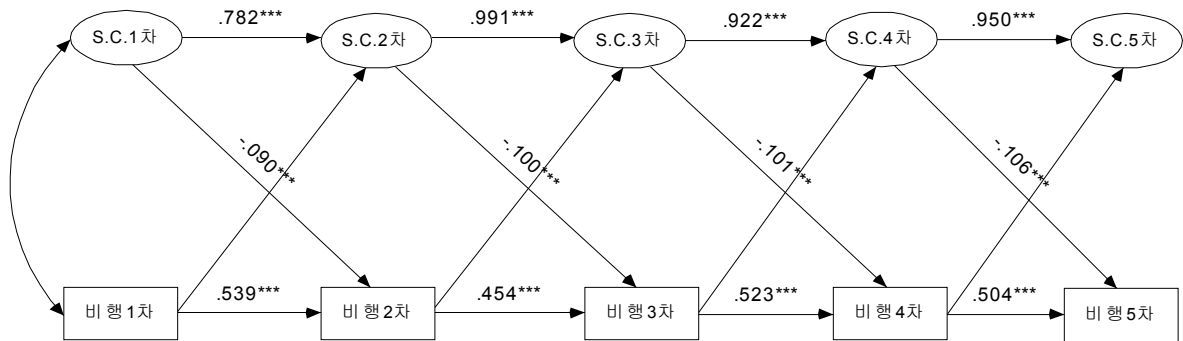


그림 2. 지위비행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의 최종 추정결과

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3의 적합도는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 2와 비교했을 때 TLI, CFI 값이 근소하게 나빠졌지만, RMSEA 값이 동일하다 ($\Delta\chi^2(3, N=2601)=68.652, \Delta TLI=-.002, \Delta CFI=-.003, \Delta RMSEA=.000$). 즉, 이전 시점($t-1$)이 이후 시점(t)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시점(t)이 시점($t+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위비행 행동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하여 제약을 가한 모형 4의 적합도를 모형 3의 적합도와 비교해 보면($\Delta\chi^2(3, N=2601)=42.742, \Delta TLI=.000, \Delta CFI=-.003, \Delta RMSEA=.000$), TLI, RMSEA 값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지위비행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 시점의 교차지연효과(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5($\Delta\chi^2(3, N=2601)=16.526, \Delta TLI=.002, \Delta CFI=.000, \Delta RMSEA=-.001$)와 모형 6($\Delta\chi^2(3, N=2601)=26.018, \Delta TLI=.002, \Delta CFI=-.002, \Delta RMSEA=.000$)의 적합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위비행의 교차지

연효과와 지위비행에 대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7의 적합도를 모형 6과 비교하여 보면($\Delta\chi^2(2, N=2601)=370.749, \Delta TLI=-.024, \Delta CFI=-.20, \Delta RMSEA=.006$), TLI, CFI, RMSEA 값이 이전 모형에 비해 미약하게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 6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6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 4와 그림 2와 같다.

최종모형에 따른 연구문제 검증

그림 2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과의 최종 추정 결과이고, 여기서는 편의상 구조계수만 표준화 추정치로 제시하였다. 표 4와 그림 2를 살펴 보면 이전시점($t-1$)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이후 시점(t)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다음 연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에도 이전 시점($t-1$)의 지위

비행 행동이 이후 시점(t)의 지위비행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청소년 지위비행은 다음연도의 지위비행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beta = .78 \sim .99$)이 지위비행($\beta = .45 \sim .54$)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이 이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전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이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시점($t-1$)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이후 시점(t)의 지위비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 \sim -.11$). 그러나 교차지연계수의 방향성이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점의 지위비행이 이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유의수준을 통해 각 시점에서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족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내 구성원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 모형 6에 대한 경로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S.C 2 ← S.C 1	.782***	.933	.010	95.512
S.C 3 ← S.C 2	.991***	.933	.010	95.512
S.C 4 ← S.C 3	.922***	.933	.010	95.512
S.C 5 ← S.C 4	.950***	.933	.010	95.512
비행 2 ← 비행 1	.539***	.487	.008	59.942
비행 3 ← 비행 2	.454***	.487	.008	59.942
비행 4 ← 비행 3	.523***	.487	.008	59.942
비행 5 ← 비행 4	.504***	.487	.008	59.942
S.C. 2 ← 비행 1	.013	.045	.024	1.839
S.C. 3 ← 비행 2	.012	.045	.024	1.839
S.C. 4 ← 비행 3	.013	.045	.024	1.839
S.C. 5 ← 비행 4	.012	.045	.024	1.839
비행 2 ← S.C. 1	-.090***	-.027	.003	-10.320
비행 3 ← S.C. 2	-.100***	-.027	.003	-10.320
비행 4 ← S.C. 3	-.101***	-.027	.003	-10.320
비행 5 ← S.C. 4	-.106***	-.027	.003	-10.320

*** $p < .001$

이것은 비행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정서적, 성적, 신체적 학대가 발생했거나(Tyler et al., 2000), 부부간의 갈등,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보건복지가족부, 2008)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출행동과 같은 지위비행을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횡단연구에 한정되어 청소년의 비행 관련 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에 기초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 Cohen(1988)에 의하면 표준화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이하면 효과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석하고, .30정도까지는 '보통'으로 해석하며, .50이상이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전 시점의 비행행동이 이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번 지위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 동안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특히 한 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가출을 하거나 재가출을 감행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따라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연구할 때는 최초 비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이전 시점에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본이 누적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횡단연구를 통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한 연구들(Coleman, 1998; 김경근, 2000; 안우환, 2004)과

일치하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 간의 교차지연 계수가 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 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매 시점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2시기의 사회적 자본이 중3시기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090)과 고2시기의 사회적 자본이 고3시기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106)을 비교해 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eachman(1987)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

별첨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1.00														
②	.564**														
③	.506**	.574**													
④	.455**	.513**	.600**												
⑤	.432**	.476**	.536**	.608**											
⑥	.017	.016	.027	.044**	.028										
⑦	.016	.037	.031	.022	.036	.398**									
⑧	.089**	.082**	.079**	.084**	.096**	.160**	.271**								
⑨	.116**	.131**	.118**	.095**	.086**	.200**	.262**	.382**							
⑩	.080**	.127**	.111**	.090**	.072**	.140**	.191**	.335**	.521**						
⑪	.508**	.336**	.321**	.259**	.267**	-.004	.009	.098**	.112**	.105**					
⑫	.372**	.546**	.357**	.333**	.351**	.029	.018	.086**	.124**	.109**	.485**				
⑬	.305**	.329**	.526**	.338**	.330**	.022	.038	.106**	.144**	.100**	.454**	.499**			
⑭	.301**	.313**	.349**	.556**	.389**	.015	.033	.091**	.094**	.070**	.386**	.438**	.505**		
⑮	.300**	.320**	.331**	.377**	.581**	.029	.020	.090**	.089**	.069**	.382**	.438**	.480**	.535**	

① 관계1 ② 관계2 ③ 관계3 ④ 관계4 ⑤ 관계5 ⑥ 구조1 ⑦ 구조2 ⑧ 구조3 ⑨ 구조4 ⑩ 구조5 ⑪ 인지1 ⑫ 인지2 ⑬ 인지3 ⑭ 인지4 ⑮ 인지5

** $p < .01$

력은 감소하고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노성호, 2005; 민가영, 2007)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 시점마다 청소년 지위비행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비행의 종류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형성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상이고, 높은 수준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매 시점마다 영향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한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전체 가족의 문제로 이해해야 하고 비행행동을 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및 부모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가족 내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어 지는 각각의 차원들이 안정적인 경우,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상담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유형인 관계적 차원(부모와의 대화, 학습 조력), 구조적 차원(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인지적 차원(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친구에 대한 부모의 인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 청소년의

부모상담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위비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기광도, 이희열 (2002).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정연구**, 16, 7-27.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1-22.
- 김대업 (2009). **AMOS A to Z**. 경기도 : 학현사.
- 김영모 (2000). **현대사회문제론**. 고현출판사.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박정선 (1999).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동원 (1996).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호 (2005).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16(3), 295-330.
- 민가영 (2007). 신빈곤층 가족 십대 여성의 가출 재생산 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29-44.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청소년 유해 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안우환 (2004).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창규, 전유식, 문선화 (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계**. 서울 : 집문당.
- 연성진, 민수홍 (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석춘, 장미혜, 정병은, 배영 (2003).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07). **청소년비행의 발전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 정갑영, 박준, 채승병, 한준 (2009). **제3의 자본**. 삼성경제연구소.
- 이혜은, 최정아 (2007).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장수환 (1993). **상당사례 분석을 통한 가출청소년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 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User's guid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치연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Aldridge, S., Halpern, D., & Sarah F. (2002). *Social capital: A discussion paper*. London, England: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 Bourdieu, P. (1977).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In J. Karabel & A. H. Haley (Eds.),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Oxford.
- Bourdieu, P. (1986).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icourel, A. V. (1973). *Cognitive sociology*.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Book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95, S95-S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1994). Social capital, human capita, and investment in youth. In A. Petersen & J. T. Mortimer(Eds.), *Youth, unemployment, and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spi, T. D., & Sabatelli, R. M. (1993). Adolescent runaways and family strife: A conflict-induced differentiation framework. *Adolescence*, 28(112), 875.
- Farrington, D. P. (1995). The 12th Jack Tizard memorial lecture: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r from childhood: key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9), 929-964.
-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Grootaert, C. (1999). Social capital, household welfare and poverty in Indonesia. *Local Level Institutions Working Pape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agell, A., & Newburn, T. (1996). Family and social contexts of adolescent re-offender. *Journal of Adolescence*, 19(1), 5-18.
-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772-785.
- McNeal, R. B. Jr. (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 117-144.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ortes, A., & Landolt, P. (1996).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The American Perspective*, 26, 18-21.
- Smith, C. A., & Stern, S. B. (1997).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71(3), 382-421.
- Stott, M. W. R., & Olczak, P. V. (1978). Elat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o juvenile offense categories: Differences between status offenders and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80-84.
- Techaman, J. D. (1987).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resources and educational attain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548-557.
- Teachman, J. D.,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4.
- Tyl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2000). The effects of early sexual abuse on lat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female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3), 235-250.
- Wingert, S., Higgitt, N., & Ristock, J. (2005). Voices from the margins: Understanding street youth in winnipeg. *Canadian Journal of Urban Research*, 14(1), 54-80.
- Werner, E. E., & Smith, R.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NY: Mcgraw-Hill.

원 고 접 수 일 : 2012. 03.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5. 24.

게 재 결 정 일 : 2012. 06. 04.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and Family Social Capital

Mi Ra Lee

Mi Jeong Park

Dong Eui University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and family social capital. This study used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in 2003–2007 that were assessed by the Korean Adolescent Policy Research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ith Amos 7.0.

From the analysis result using the ARCL Model, family social capital an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were continued from middle school 2nd grade to high school 3rd grade in significant stability. In addition, the previous family social capita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ater perio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That is, as family social capital increases, later status offenses of adolescents decrease. But this cases, adolescent' status offenses did not influenced family social capital at any period.

Key wor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Family Social Capita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